

2011. 4

April

협회 동정

협회 박상진 회장 삼성 SDI 사장에 선임



▶박상진 삼성SDI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상진 전 삼성디지털이미징사업부 사장이 2011년도부터 삼성SDI의 새 수장을 맡는다.

박상진 신임 삼성SDI 사장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간 삼성테크윈에서 분사된 삼성디지털이미징을 맡아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사업을 총괄해왔다.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전략 마케팅' 통으로 유명하다.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시절 세계 최초로 '듀얼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해 대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이 렌즈를 비롯한 광학기술을 내재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박 사장은 1992년 삼성전자 SEG 법인장, 1999년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 실장(상무), 2003년 무선사업부장(전무), 삼성테크윈 디지털카메라사업부장, 2008년 삼성테크윈 디지털카메라사업부 부사장 등을 거쳐 2009년 삼성디지털이미징 부사장, 2009년 12월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제4차년도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한국광학기기협회와 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기획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오후 4

시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년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근거로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5차년도 사업에 대하여 중점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측에서는 향후 신규 인력양성 사업시, 교육과정 및 장비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인력사업에 대해 향후 적극 검토하여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5차년도에는 인하대와 협의하여 지난 10년간 진행한 인력사업의 총괄 평가 및 업체채용효과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날 기획평가위원회에는 광기술 교육센터 황보창권 교수, 산업기술대학교 조언정 교수, 청주대학교 이종용 교수, 프로옵틱스 정진호 사장, 차바이오&디오스텍의 김영준 상무, 그린광학의 유정훈 차장 등 총 6명의 기획평가위원들과 협회의 송기호 부장, 이상현 과장 등이 함께 자리를 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년도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열었다.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10년도 협회활동을 결산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

월 26일 합지박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10년도 잉여금 처분(안),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2011년도 사업방향을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강화,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렌즈설계·레이저 산업전시회'에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하여 수출상담회를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0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이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학분야의 표준화로드맵 및 국내외 표준(안) 개발 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회원사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기술자문 및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공적을 세운 인하대학교 황보 창권 교수에 대한 공로패 시상식이 있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상진 회장



▶협회 송기호 부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고 있는 황보 창권 교수(오른쪽)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정회원(1개사)

액츠(주)

- 대표 : 문희중
- 전화 : (02)2029-7474
- 팩스 : (02)2029-7475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214호
- 주요 품목 : 광학부품 외

(주)동우옵트론

사무실 이전

동우옵트론(대표·박노균)이 사세 확장과 함께 지난 3월 2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한 새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광명 SK테크노파크 D동 408호)이며 전화번호(대표)02-895-5445, 팩스번호 02-2083-2280이다.

부원광학(주)

성실납세자 인증서 받아

부원광학(대표·박형기)이 경기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부원광학을 비롯한 경기도 소재의 314개 업체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청에서 거행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상했다.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징수수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1회에 한하여 면제받는다. 더불어 도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부원광학은 이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 가운데서도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 투명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검증받았다.

삼성전자(주)

디지털이미징사업 새 수장으로 정현호 부사장 선임



▶정현호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삼성전자(대표·최지성)가 디지털카메라 사업 일류화를 책임질 새 수장으로 정현호 부사장을 선택했다. 정 부사장은 2011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는 삼성SDI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옮긴 박상진 사장에 이어 2011년부터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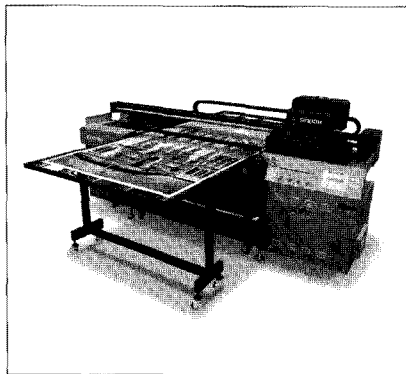
정 부사장은 재무전문가로 국제금융, IR업무 등 다양한 경영관리 업무를 경험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영 감각이 우수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스마트폰발 모바일 빅뱅 시대라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신종균 무선사업 부장을 도와 사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해 업계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0년생(50세)으로 덕수정보산업고, 연세대 경영학과,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등을 마쳤다. 지난 1983년 삼성에 입사해 2002년 삼성전자 경영관리그룹장 2006년 삼성전략기획실 상무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으로 일해왔다.

(주)신도리코

산업용 UV프린터 시장 진출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산업용 UV(Ultra Violet)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



▶ 신도리코 UV 프린터(1600시리즈)

신도리코는 다양한 소재에 원하는 크기로 고품격 인쇄하는 UV 프린터 1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UV프린터는 종이는 물론 유리, 목재, 벽돌, 석고, 플라스틱, 금속판 등 다양한 소재에 고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한 산업용 프린터의 일종이다. UV경화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화합물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UV프린터는 높은 인쇄 품질, 다양한 표현 기능, 친환경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산업용 프린터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김성용 신도리코 이사는 “신도리코가 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완벽해온 만큼 UV 프린터 시장

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폭 넓은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유기 반도체 제조장치 특허권 취득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박희재)이 지난 2월 28일 유기 반도체 제조장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식했다.

이 특허는 각종 기판에 유기물을 증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유기 반도체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로서, 본 기술은 기판과 분사장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공정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올림푸스한국(주)

임원 인사 통해 영상·의료 분야 강화

올림푸스한국(대표·방일석)이 사업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명의 임명 및 6명의 승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상무보에 ▲올림푸스한국 영상사업본부장 이극로 ▲의료사업본부장 방인호, 이사에 ▲사업지원그룹장 장승희 ▲의료사업본부 SP그룹장 최현철 ▲인재전략실장 홍승갑 ▲영상사업본부 영업그룹 겸 IMC 그룹장 전종철 ▲물류센터장 김호복, 전무에 ▲올림푸스한국서비스 COO(최고운영책임자) 조철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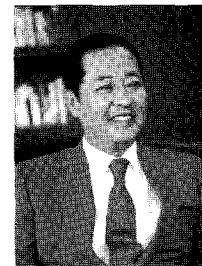
회사 측은 상무보, 이사, 전무로 구성된 이번 인사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 중심의 영상 사업뿐만 아니라 내시경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사업 및 자회사까지 각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성을 살려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림푸스는 해외법인 및 자회사 300여 개, 직원 수 4만여 명, 연 매출 약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올림푸스한국은 글로벌 본사의 한국 법인으로 경영, 인사, 재무를 비롯한 영업 및 마케팅 등을 본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올림푸스한국은 디지털 카메라 중심의 영상 사업부와 내시경 및 각종 의료기구 개발 및 판매를 책임지는 의료 부문 등 2개 사업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올림푸스FN코리아’ 신설 법인을 출범시켜 의료 관련 금융 서비스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올림푸스한국(주)

방일석 사장, 일본 본사 역대 최연소 집행임원 선임



▶ 올림푸스한국 방일석 사장

방일석 올림푸스한국 사장이 일본 본사 집행임원에 선임됐다.

카메라와 의료기기 업체 올림푸스그룹은 지난 2월 16일 임원 인사에서 방 사장을

본사 집행임원(집행역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임원은 올림푸스그룹 내 최고위급으로 각종 의사결정을 책임진다. 영상 의료 신규 사업 등 부문별 책임자들이 임명되며 숫자는 20여명이다.

지금까지 올림푸스그룹 내 집행임원 가운데 외국인은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된 마이클 우드포드 유럽본부장(영국)과 미국인 1명이었다. 방 사장은 역대 올림푸스 집행임원 가운데 최연소다.

방 사장은 2000년 올림푸스한국 출범 때 사장을 맡아 3년 만에 디지털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03년 영상

시스템 부문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 아시아·중동 총괄 사장에 임명됐고 2004년에는 올림푸스이미징 역대 최연소 등기임원에 선임됐다.

올림푸스한국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달리 지주회사 소속으로 신사업 투자 마케팅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올림푸스 해외지사 가운데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배당성향이 평균 2.7%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재투자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애플 iOS용 프린트 및 문서뷰어 앱 출시

최근 기업들이 모바일 오피스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업무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후지제록스가 스마트 프린팅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애플 iOS용 프린트 및 문서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후지제록스의 프린트 앱인 '프린트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물론 웹 페이지, 주소록 등을 컴퓨터와의 연동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이 앱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주변의



▶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애플 iOS용 프린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출력 가능한 복합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기본 출력 외에도 양면 인쇄, 여러 사진을 한 장에 출력하는 N-업 기능, 컬러모드 선택 등 다양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문서출력 역시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서뷰어 앱인 '다큐웍스 뷰어 라이트'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문서를 쉽고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하다. 다크웍스는 후지제록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MS 오피스 문서, 한글(HWP) 문서, PDF, 스캔 문서 등을 다크웍스(XDW)라는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후지제록스에서 이번에 출시한 앱은 기업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등 보안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며 "기업에 최적화된 후지제록스의 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워크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올해 상반기 중 안드로이드용 앱 또한 출시할 예정이며,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황유천) 역시 올해부터 이 앱을 지원하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휴비츠

안경 렌즈 관련 특허권 취득

안광학 전문기업인 휴비츠(대표·김현수)는 지난 3월 21일 자동 렌즈 블로킹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안경 렌즈 가공을 위한 렌즈 블로킹 장치에 관한 것"이라며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작업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광학계 동정

한국광학회, 2011년도 동계학술 발표회 개최

한국광학회의 동계학술발표회가 지난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동계학술발표회에는 100여 편이 넘는 우수한 초청논문 및 일반논문이 발표되어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인 광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광 과학기술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교류의 큰 마당이 되었다. 또한 미국광학회 차기회장 선출자, 비선형광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학제간 광응용 생체영상연구의 국내 최고전문가의 초청강연과 함께 태양전지,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야의 광학특강이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2005년도에 시작하여 한국광학회의 광산업전시회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OPtoWin 2011'에는 25개 관련업체가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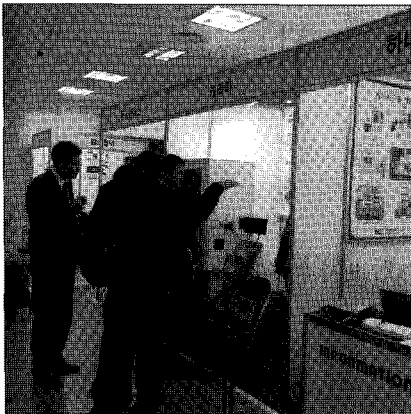
한편 2월 10일에 열린 제22회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들을 선정하여



▶ 이병극 카메라 사장이 한국광학회 정기총회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다.



▶김상열 광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채진석 한국전광 사장(오른쪽)



▶2005년도에 시작하여 한국광학회의 광산업전 사회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OptoWin 2011'에는 25개 관련업체가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산업체에 주어지는 ▷감사패는 채진석(한국전광), 김창곤(큐빅 레이저시스템), 최재혁(명진크리스텍), 이인원(고등광기술연구소), Jane Throwe 회원이, ▷기술상은 이병극(캐리마) 사장이 수상했다. 또한 ▷학술상 김칠민(서강대), ▷논문상 한영근(한양대) ▷논문장려상 김현우(전북대) ▷OSA Student Prize 박순기(경희대) ▷공로상 이범구(서강대), 이종민(GIST), 정영욱(KAERI), 이종훈(영남대) ▷성도광과학상 남창희(KAIST) ▷해립광자공학상 정윤철(KAIST) 회원 등이 수상했다.

광학인포메이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자율준수체제(CP)를 갖춘 기업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29개국('가' 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 또 '가' 지역과 바세나르체제(재래식 무기수출 통제)에 가입한 나라에 암호화 품목(ENC)을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전략물자로 지정받은 제품들의 수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해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를 개발·제조·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략물자 범위와 지역이 포괄적이어서 범용 제품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고시 개정은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암호화품목(ENC)도 '가' 지역이나 바세나르체제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받게 됐다. 암호화품목은 통신기에 들어가는 범용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일반 통신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수출 허가 면제 대상 금액을 1000달러 이하에서 3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CP 기업들의 수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UAE에 원활한 원전수출 지

원을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하고 원전수출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 면제 대상은 157건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지경부 소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면제 대상은 3060건이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 면제 비중은 기존 35%에서 4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 '가' 지역=자율준수체제(CP)를 갖춘 기업들이 현지법인 등에 수출 시 허가 면제를 받은 지역으로,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을 말한다. 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등에 대한 통제 원칙과 품목을 정하는 체제를 말하며, 모두 가입한 회원국은 29개국이다.

광주(광산업)등 4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기업주치의' 가동

지식경제부는 4월 반월시화(부품소재)·구미(전기전자)·창원(메카트로닉스)·광주(광산업) 4개 지역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설치, 정부 예산 50억원과 기업은행 25억원(기부금) 등 총 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주치의센터'는 30분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일정 기업들을 전담 관리하면서 기업 맞춤형·현장 밀착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부터 성장 아이템 발굴·지원까지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센터에서는 기술과 경영, 금융 전문 주치의가 배치돼 활동한다.

광학이벤트

“LED조명, 기술 장벽을 넘는다!”

(주)모던하이테크 ‘2011 LED핵심부품·Solution 국제세미나’ 개최

【LED산업은 친환경 그린 산업의 대명사로 조명은 물론 가전, 자동차, IT 융합 등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주)모던하이테크(대표·김명중·www.okmodern.com)는 이러한 국내 LED시장을 고찰하고, LED 조명산업의 기술향상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한국산업기술대학교(KPU)와 공동주관 하에 ‘2011년 LED 핵심부품·Solution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1년도 LED 핵심부품·Solution 국제세미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서의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사가 보유한 독자적 기술 및 LED 부품·소재에 관한 국내 최신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의 취지는 국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의 기회 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한국의 LED조명 산업이 한발 앞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최신 기술들이 국내 기업에 전파되어 국내 LED조명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본다.

〈세미나 프로그램〉

주제	소속 / 강사
LED Lighting Engine	한국산업기술대학교/현동훈 교수
LightTools를 이용한 LED Light Simulation	미국 Synopsys/Mr. Stuart David
LED Display용 확산판과 NIP	일본 Toshiba/Mr. Nishihara
Dot형 COHS LED PKG 기술	대만 Light Ocean/Mr. Bill Chuang

한편, 모던하이테크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학산업분야의 결상광학계 설계프로그램인 CODE V와 조명광학 설계프로그램인 LightTools의 국내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다. 모던하이테크의 김명중 대표는 “지식경제부에서도 LED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발표하는 등 LED조명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던하이테크에서도 LED핵심조명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국내 광학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실력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국내 광학산업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광학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여 방법 및 일정에 관한 문의는 (주)모던하이테크 홈페이지나 카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열렸던 'LED 조명·방열 광 확산 솔루션 국제세미나' 광경

■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 (www.okmodern.com) 전화 : 02-2108-5900